

곡성군 섬진강 유역 기생충 감염률 ↑...무료 검진

질병청 검사... 6.8%로 최고 22일까지 지역민 대상 검사

곡성군이 군민들의 섬진강 유역 기생충 감염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지역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섬진강 유역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6.8%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1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다.

지역민 1025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84명(8.2%)이 양성자로 나타났으며 간흡충 45명(4.39%), 장흡충 36명(3.5%), 기타 3명(0.2%)이 발견됐다. 전국 평균보다 감염률이 1.4% 높았다.

곡성군은 오는 22일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무료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희망자는 곡성군보건의료원, 읍

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채변통을 받아 대변을 채취한 후 수령지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장내 기생충 양성자에게는 무료 투약과 기생충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

장내 기생충 질환은 민물고기(참깨·다슬기·돌고기·목개·연어·가재·잠골) 생식을 통해 감염된다. 오염된 채소나 과일, 물, 조리도구, 식기류(칼·도마·양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간흡충에 감염될 경우 초기 증상이 없

지만 급성감염기에는 상복부 통증, 발열 등이 나타난다. 만성기에는 체중감소, 식욕부진, 황달 등의 증상과 간경화, 담관염, 담관암 등으로 진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지역은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 간흡충, 장흡충 등 각종 기생충에 대한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며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는 끓는 물에 10초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구례군,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최고 2000만원 보장

구례군은 일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의 보장한도는 최고 2000만원이며 기간은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는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에 비해 4개 늘어난 15개 항목으로 보장 폭을 넓혔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본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정보공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곡성군, 민원서비스 등

곡성군이 민원서비스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곡성군은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민원서비스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곡성군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591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사전정보 충실성, 원문 공개율, 청구처리 지연 관리 등에서 92.5점을 받아 평균 점수 82.69보다 높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곡성군은 76.97점으로 평균 70.45점보다 높아 '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민원제도 운영 개선,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곡성=김대영 기자

화순군, 샤인머스켓 신규자 교육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자 하는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작목, 수출단지육성 신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샤인머스켓을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역특화·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 지원 전에 △샤인머스켓에 대한 기초적인 재배관리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지원사업의 방향 및 체계 등을 사전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은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이었다.

수출 전문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10ha 이상 생산 기반을 갖추고 △유통시설을 통해 공동 선별하여 △수출실적 3년 이상 △농약 안정성 및 품질관리를 통한 GAP 인증 △전문과정 위탁교육 및 기술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화순=김선중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군민과의 대화 23일까지 12개 읍면

이병노 담양군수가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담양군은 14일 담양읍에서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2주간의 일정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여론을 듣고 소통하며 군민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질의와 더불어 읍면에서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미리 받아 답변하는 방식을 더했다.

이날 참석한 군민들은 일상에서 평소 겪었던 애로사항을 비롯해 주요 정책에 관해 묻고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경청과 섬김의 원칙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해답을 찾겠다"며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올해 역점 사업을 준비해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담양' 건설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드림스타트 꿈 프로그램 추진 구례군, 부모 교육 등 41개

구례군은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을 위한 꿈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130여명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11종의 필수 서비스와 30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2월에는 가족내 의사소통과 관계 회복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과 또래 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감 이해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들의 수준별 기초학습 학습지 및 특기·적성학원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및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 성장 발달 체크와 더불어 예방접종, 깨끗한 가정환경을 위한 소독 방역용품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래프팅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이밖에 부모의 양육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방법 및 소화기 사용 방법,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교육, 아동 권리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화순군,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

화순군이 지난 1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순군 및 사단법인 동북대이주민협회와 함께 실시하여 가뭄의 심각성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화순군 제공

장성군, 점포경영개선 신설...소상공인 지원 박차

시설 개선 최대 500만원 한도 점포임대료·대출이자 차액보전

장성군이 점포경영개선 지원을 신설,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의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에 2020년 2월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1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

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061-390-7352)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관련 소상공인은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업종에 따른 별도 제약을 두지 않는다.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병현 기자

나주시,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셋째 이상 300→1000만원'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난임진단검진비 최대 30만원

나주시가 국가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선8기 임신·출산지원 강화 '두 번째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 진단 검진비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저출생 극복·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 문턱을 낮췄다.

기존 '6개월 거주조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도 없었다.

출산 후뿐 아니라 임신부(6개월·21주 이상)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상향과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은 민선8기 '임신·출산 2단계 지원 시책'이다.

나주시는 기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책정

된 출산 장려금을 7월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난임 문제를 파악하고 임신에 도움을 주는 '난임 진단검진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임신·출생은 주거·보육 여건은 물론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결된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라며 "청년·신혼부부들이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